

# ‘생산자의 역사’에서 ‘수용자의 역사문화콘텐츠’로의 전환

유병준\*, 태지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역사문화콘텐츠 영역이 지닌 현시대적 의미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콘텐츠를 기존 역사학의 영역 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과거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역사학의 방법론이 ‘생산자의 역사’를 다루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때 발생하는 ‘공감’에 대한 문제에 주목했다. 이후 역사문화콘텐츠의 양상을 ‘팩션’과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역사문화콘텐츠는 팩션으로서 다양한 과거를 다룰 수 있다. 이는 ‘실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의 과거를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가와 과거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역사가와 대중’, ‘대중과 대중’, ‘과거와 대중’ 등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정리하자면, 역사문화콘텐츠는 기존 역사학의 연장선상에서 ‘활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새로운 역사 영역을 수용자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를 과학적 역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과거를 새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거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역사문화콘텐츠, 역사, 역사학, 팩션, 히스토리텔링

\* 안동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qudwns12346@hanmail.net (주저자)

\*\* 안동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tae7675@anu.ac.kr (교신저자)

## I. 역사문화콘텐츠의 등장

단일성에 대한 믿음과 진실을 갈망했던 모더니즘의 사조 속에서 과학적 역사학은 분과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sup>1)</sup> 이후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삼아 과거는 역사학의 방법을 통해 다루어졌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sup>2)</sup> 속에서 과거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되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역사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대중들에게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중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역사를 향유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출판 매체에서 사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학 서적 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담아 제작된 역사 소재의 출판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영상 매체에서 역시 픽션과 팩션 사이의 과거를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이 호황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역사문화콘텐츠<sup>3)</sup>는 과거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등장했다.

주지하듯이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문화콘텐츠(학)와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위기’라는 담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sup>4)</sup> 역사문화콘텐츠 영역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역사(학)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주로 그것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활용을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5)</sup> 다시 말해 기존 역사학의 연장선상에서 사료에 대한 ‘활용’과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던 것이다. 역사학적 가치의 활용에 대해서만 초점을 둔다면 과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픽션, 팩션, 퓨전 등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일련의 논의는 사료를 중시하는 역사학을 준거점으로 삼아 역사문화콘텐츠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 
- 1) 역사를 근대적 학문 분과로 정립하고자 했던 랑케는 확증된 자료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토대로 그에게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어땠는가’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08, 334쪽 참고.
  - 2)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근거를 토대로 한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학은 인식론적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구성된 역사의 정합성뿐 아니라 작가와 텍스트의 정합성 또한 의문시되었고, 역사적 지식의 직접성은 거부되었다. 조지 이거스, 임상우 옮김,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1999, 212쪽 참고.
  - 3) 태지호(2019)는 역사문화콘텐츠를 역사문화적 소재가 활용된다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문화콘텐츠를 단지 경제적 혹은 산업적 효용성만을 염두에 두는 재화로서만 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러한 가치 외에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것이 내포하는 실천적 의미를 강조한다. 태지호, 「히스토리텔링 개념을 통한 역사문화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의미」,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134쪽 참고. 본 연구에서는 태지호(2019)가 정의한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념에 따라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4) 김기덕(2013)은 인문학의 위기라는 담론에서 문화콘텐츠에 주목한 과정을 인문콘텐츠학회의 성립을 통해 설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기덕, 「문화콘텐츠의 등장과 인문학의 역할」, 『인문콘텐츠』 제28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9-31쪽 참고.
  - 5)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역사(학)의 유용성이나 활용의 측면에 주목했다. 즉 역사학의 새로운 역할론에 대해 집중하면서 기존 역사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해 다루었다. 태지호, 위의 글, 127쪽 참고.

역사문화콘텐츠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사료의 틀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를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시대적 의미를 모색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콘텐츠 영역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역사문화콘텐츠를 기존 역사학의 영역 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과거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역사학의 관점에서 과거를 다룰 때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후 생산의 영역이 아닌 수용의 영역에서, 수용자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일련의 논의를 통해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학과 달리, 역사문화콘텐츠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II. 생산자의 관점에 입각한 역사학

### 1. 국가·정치사, 사회·경제사, 그리고 신(新)문화사

역사학의 영역에서 진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은 시기에 따른 흐름이 존재한다. 이는 당시 존재하던 시대적 맥락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즉 역사학의 흐름 속에서 진실에 대한 탐구 방식은 변화되어 온 것이다.

역사학은 19세기에 이르러 학문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레오폴트 폰 랑케가 역사학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 사료의 비판 및 원 사료에 대한 엄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덜 알려진 것은 그런 엄밀한 방법으로 그가 연구하려던 일차적인 대상이 국가였다는 것이다.<sup>6)</sup> 국가·정치사는 본질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정치라고 판단한다. 정치사에서 정치권력의 대립, 이동 등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와 이를 통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대외관계는 세계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가 중심의 정치서술은 근본적으로 지배층의 역사를 반영한다. 그 이유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와 같은 조직에서 다루어지는 거시적 의미의 정치 행위는 왕, 귀족 등의 지배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지배층의 입장을 반영한 역사 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정치사 중심의 역사 구성에서는 정치적 요소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여기기에 이외에 과거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권력을 획득한 ‘승자의 역사’만이 중요한 것이었다.

6)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20, 24쪽 참고.

세계 역사학계를 지배하던 정치사 중심의 역사학은 19세기 말부터 사회과학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를 통해 정치·외교의 테두리 속에서 전부 담아낼 수 없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군주 국가에서 대중 민주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 사회로의 이전이 완성되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와 정치 이외의 요소를 통해 사회 변혁의 구조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역사는 국가·정치사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에 대한 요소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사회·경제사는 랑케식의 역사가 국가와 정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산업화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 속에서 출발하였다.

조지 이거스는 랑케적인 전통사학에 맞선 대표적인 사회과학적인 역사를 프랑스에서의 아날학파적 전통,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시즘의 대두 등을 꼽았다.<sup>7)</sup> 사회과학적 모델과 사적 유물론은 모두 역사와 사회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국가, 시장, 혹은 마르크스주의 경우에는 계급이 그 핵심을 구성한다. 특히 마르크스는 정치적 사건이 대립하는 계급 이해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창조한 것은 이러한 계급의 성원인 광범위한 대중이 배제되고 전통적 정치사에서와 같이 정치적 인물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였다.<sup>8)</sup>

20세기 전반기의 사회과학적 역사 연구가 19세기까지 지배적이었던 ‘정치’를 ‘사회’라는 카테고리로 대체했다면,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역사학은 일상적인 생활과 경험의 토대가 되는 ‘문화’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다.<sup>9)</sup> 신(新) 문화사는 역사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삶이 진행되는 작은 집단들의 수준에서 역사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0)</sup> 나아가 이전처럼 개인에 대한 착취와 지배의 원인을 정치, 경제 등의 거시적 관점 속에서 찾는 대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구조 등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 2. 역사학의 방법(들) : ‘생산자의 역사’

앞선 논의들을 통해 역사 구성의 방법은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근대 역사학이 등장한 시기에는 국가·정치사 중심의 역사 구성이 진행되었다. 이후 사회과학으로서의 역사가 주창되어 사회구조적인 맥락, 즉 생산양식과 생산력을 통해 사회 구조를 바라보았고 이러한 흐름에서 역사는 구성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문화적

7) 옥영수,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와 역사학: 쟁점과 전망」, 김기봉,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101-102쪽.

8) 조지 이거스는 전통적 마르크스의 역사 구성에서 구체적인 노동자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마르크스가 농민, 노동자를 수동적인 세력으로 파악하며 그들을 “자루 속의 감자들”로 비유한 것을 지적한다. 조지 이거스, 앞의 책, 136-138쪽 참고.

9) 김기봉, 위의 책, 105-106쪽.

10) 조지 이거스, 위의 책, 109-117쪽 참고.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신 문화사를 통해 이전보다 말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료’를 준거점으로 삼기에 다양한 과거의 모습들을 다루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역사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역사학적 관점에서 구성되었기에 특정 방법만이 과거를 다루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 역사에서 객관성은 달성될 수 없으며 단지 개연성만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

역사학적 방법들만을 통해 구성된 역사에서는 다양한 수용자들의 공감을 얻기에 많은 한계가 발생한다. 역사가의 의해 구성된 과거는 생산의 관점에서 다루어지지만, 수용의 영역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용의 영역을 배제한 과학적 역사에서는 ‘역사가-과거’의 일방적인 소통이 진행되기에 다양한 이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렇기에 과거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그 당시의 단면을 파헤쳐 그것을 과학적인 것으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닌, 일반화·정형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 III. 수용자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문화콘텐츠

본 장은 역사문화콘텐츠를 팩션과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두 요소를 통해 역사문화콘텐츠가 ‘생산자의 역사’에 비해 수용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영역으로서 지닌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팩션(faction) :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꿈의 역사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역사학에서는 당시 배제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 속에서는 결국 ‘누군가를 위한 역사’<sup>11)</sup>만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진다.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사실’의 범주로 철저히 억압당한 역사적 상상력을 복구해야한다. 역사적 상상력은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다양한 모습을 상상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승자가 아닌 패자의,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의, 남성이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과거를 다루는 ‘꿈꾸는 역사’<sup>12)</sup>가 가능해

11) 키스 켄킨스는 역사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항상 누군가를 향해 웃음 짓도록 조율되어 있는 담론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역사는 특정 집단(혹은 개인)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위하지 않는 역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키스 켄킨스, 최용찬 옮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혜안, 1999, 69-70쪽 참고.

12) 김기봉(2016)은 사극을 통해 ‘꿈꾸는 역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통사극, 팩션사극, 픽션사극의 층위를 구분하여 꿈꾸는 역사로서 사극이 지닌 의미를 모색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김기봉, 「사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꿈꾸는 역사로서 사극」, 『인문콘텐츠』 제43호, 인문콘텐츠학회, 2016, 9-22쪽 참

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과거를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축제 등의 역사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

팩션(faction)은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붙인 장르이다.<sup>13)</sup> 역사문화콘텐츠는 팩션을 통해 역사학의 영역에 담기지 못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다. 그렇기에 과거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영화 <왕의 남자>가 하층민이었던 광대 공길을 주연으로 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일례이다. 이처럼 팩션 영역에서는 중심화 된 것들로부터 벗어나, 사료로부터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즉 여러 과거(들)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팩션이 대중들이 꿈꾸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왜 대중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꿈꾸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역사문화콘텐츠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실천적인 논의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역사문화콘텐츠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사실을 허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 해석을 가능토록 한다.<sup>14)</sup> 이는 과거의 사실을 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과거와 현재의 대화, 즉 담론적 유희를 통해 역사 해석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열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는 ‘실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의 과거를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역사문화콘텐츠는 팩션을 통해 여러 과거(들)과 대면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함께’ 꿈꾸는 역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꿈꾸는 역사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이 꿈은 누구의 꿈이며, 왜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히스토리텔링(historytelling)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천적 역사

히스토리텔링(historytelling)이란 히스토리(history)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고.

13) 팩션(faction)은 글자 그대로 ‘사실적 허구’를 뜻한다. 이러한 신조어의 탄생은 사실은 진실이고, 허구는 거짓이라는 근대 사실주의 문법의 파괴를 의미한다. 근대 사실주의 문법의 파괴와 함께 탈근대 소통양식인 팩션이 등장했다.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2009, 89쪽 참고.

14) 키스 켄킨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통해 모든 것이 과거를 동요시키고 그렇게 해서 열린 틈새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세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바람직한 성과물을 창출해 낼 공간(틈새)가 존재한다. 키스 켄킨스, 앞의 책, 181-184쪽 참고. 이러한 틈새는 역사문화콘텐츠의 영역에서 역시 다루어질 수 있다.

15) 1592년에 조선과 왜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다룸에 있어 사료를 통해서가 아닌, 당시 존재했던 하층민, 여성 등의 관점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합성어로, 미디어를 통한 역사 담화로서 역사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쓰여지고 읽히는 것과 동시에 대중들에 의해 새롭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sup>16)</sup> 히스토리텔링 개념에서는 우선 ‘텔링’의 방식이 강조된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스토리보다는 ‘이야기하는 방식’에 방점이 찍혀져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역사학이 사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추구하였다면, 역사문화콘텐츠에서는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과거의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공감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역사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어떠한 역사적 소재를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 있다.

역사문화콘텐츠에서는 수용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과거의 모습들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기존의 일방향적으로 진행되는 역사 서술과 달리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과도 연관된다. 다시 말해 히스토리텔링은 ‘역사가와 과거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역사가와 대중’, ‘대중과 대중’, ‘과거와 대중’ 등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는 개인들과 집단이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sup>17)</sup> 다양한 개인들은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일상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역사를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소비’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역사문화콘텐츠는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집단적 차원에서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닌, 개인적이고, 미시적이며, 다중화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sup>18)</sup>

#### IV. ‘생산자의 역사’에서 ‘수용자의 역사문화콘텐츠’로의 전환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콘텐츠 영역이 지닌 현시대적 의미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기존 역사학의 영역 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과거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역사학의 방법론이 ‘생산자의 역사’를 다루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때 발생하는 ‘공감’에 대한 문제에 주목했다. 이후 역사문화콘텐츠의 양상을 ‘팩션’과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사문화콘텐츠는 팩션을 통해 다양한 이들의 꿈꾸는 역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과거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16) 태지호(2019)는 히스토리텔링으로서 역사문화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비주얼 히스토리텔링, 디지털 히스토리텔링, 컨버전스 히스토리텔링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었다. 태지호, 앞의 글, 125-143쪽 참고.

17) 이는 컨버전스 히스토리텔링의 모습으로서 분과학문으로서 역사학의 경계가 해체되는 양상과도 맞닿아 있다. 태지호, 앞의 글, 138쪽 참고.

18) 태지호, 위의 글, 141쪽 참고.

이처럼 역사문화콘텐츠는 기존의 역사학의 연장선상에서 ‘활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새로운 역사 영역을 수용자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콘텐츠를 과학적 역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과거를 새롭게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거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논지를 전개하였기에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추후의 기회를 통해 논지를 보완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2009.  
 \_\_\_\_\_,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08.  
 조지 이거스, 임상우 옮김,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1999.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20.  
 키스 쟈킨스, 최용찬 옮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혜안, 1999.

• 참고논문

- 김기덕, 「문화콘텐츠의 등장과 인문학의 역할」, 『인문콘텐츠』 제28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9-31쪽.  
 김기봉, 「사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꿈꾸는 역사’로서 사극」, 『인문콘텐츠』 제43호, 인문콘텐츠학회, 2016, 9-22쪽.  
 태지호, 「히스토리텔링 개념을 통한 역사문화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의미」,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125-143쪽.

## &lt;ABSTRACT&gt;

The transition from "Producer's History" to "Audience's  
Historical-Cultural Contents".

You, Byeong-Jun\*, Tae, Ji-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historical-cultural contents area. To this end, discussion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historical-cultural contents as a way to deal with various pasts beyond recognizing them in the realm of existing historical studies. Specifically, it pointed out that the methodology of existing history dealt with the "producers's history," and noted the problem of "sympathy" that occurs at this time. Since then, the aspects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have been examined through 'faction' and 'historytelling'.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historical-cultural contents can deal with various pasts as a faction. This makes it possible to deal with the past of the 'gap' that exists between 'real facts' and 'historical facts'. In addition, through historytelling, various communications are made in relationships such as "historian and the public," "public and the public," and "past and the public," rather than "one-sided conversations with historians." In summary, historical-cultural content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new historical areas "together" with audiences in addition to the aspects of "utilization" and "activation measures" as an extension of existing hist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istorical-cultural contents as a way to deal with the past anew beyond looking a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fic and historical history. Through this, the past can be accepted in more diverse ways.

Key Words : Historical-Cultural Contents, History, Historical Studies, Faction, Historytelling

---

\*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M.A. Student, qudwins12346@hanmail.net (First Author)

\*\*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Associate Professor, tae7675@andong.ac.kr (Corresponding Author)